

믿음과 순종의 조화 🍷

많은 영혼을 사로잡는 '사냥꾼의 올무'의 하나는 바로 '의심의 덫'입니다.
그 '의심'이라는 방해 요인들은 흔히 너무나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올무가 되리라고는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보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그 덫에 단단히 사로잡혀 움푹달싹 못하게 되어 날지 못하게 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사로잡힌 새가 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심하는 영혼도 역시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날개의 하나인 믿음의 날개는 가장 미미한 의심으로도 전적으로
무능한 날개가 되어 버립니다.
새를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도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모든 것을 하려 합니다.
그들은 순종의 날개를 펴고 이를 열심히 퍼덕이면서 비상을 시도하려 하나
공중에 높이 올라가지 못함을 의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날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믿음이라는 한 쪽 날개가 힘을 잃고
축 틀어져 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의 올무'가 어떤 사람에게서는 죄를 짓게 만드는 미묘한 형태의
속임수일 수도 있고, 어떤 숨은 헌신의 결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믿음의 날개에는 이상이 없지만 순종의 날개가
축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날개만으로는 날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믿음의 날개만 가지고
날아오르려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두 날개를 조화롭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처 -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 / 한나 W. 스미스 (2002/04/09)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